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

안재현*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

ahnn@kipo.go.kr



1. 중소기업과 지식재산¹⁾

“구구팔팔(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구호가 아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의 약 99%를 차지하고, 근로자의 약 88%를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다.²⁾ 이뿐 아니라 중소기업은 국민총생산(GDP)의 59.6%(2003)³⁾, 수출의 32.4%(2009)⁴⁾를 차지하여 고용 창출과 생산 및 수출 등을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런던대학교 법대 수료
-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
- “대학의 지식재산 인식변화와 외부전문가의 역할-특허관리어드바이저의 역할을 중심으로”(2009, 서울대 행정대학원)

- 1) ‘지식재산’이라 함은 영어의 ‘intellectual property’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식재산권’ 또는 ‘지재권’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강조하는 용어이나 넓은 의미에서 지식재산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 글에서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분야를 제외한, 특허와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주로 말함
- 2) 중소기업의 비중에 관한 자세한 통계는 다음과 같음. 2008년 기준 전 사업체 수의 99.9%(304만 개), 종사자 수의 87.8%(1,147만 명) 차지.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위상지표” 2010. 5에서 재인용

통해서 국민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계속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유리한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 강화하여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그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개발된 기술은 신제품 개발에 적용하여 사업화되거나 라이선스를 통하여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한 것이 특허정보나 특허제도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특허경영 또는 지식재산 경영이다.

지식재산 경영이란 기업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적극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경영을 효율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 전략 또는 활동을 말한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 품질과 기능이 뛰어난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소비재의 경우에는 투박하게 생겼다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 만한 매력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수한 품질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브랜드가 없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면 매출에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좋은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꾸준히 알림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확보와 매력적인 디자인 개발 및 좋은 브랜드의 개발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활동과 실적은 매우 약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재권 출원 비중은 2009년도 기준, 전체 출원의 12.8%에 불과하고, 특허 출원 비중도 13.4%로서 매우 낮다.⁵⁾ 또한, 2010년 기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1건 이상 보유한 기업은 28,293개 사로서 전체 중소기업의 0.9%에 불과하다.⁶⁾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인원을 두고 있는 곳은 9.6%에 불과⁷⁾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이

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GDP 비중 산출” 2006. 4. 10. 중소기업정책연구 DB
http://db.kosbi.re.kr/statis/statis02_1_view.html?pid=07021&seq=60410K01에서 재인용

4) http://www.ytn.co.kr/_ln/0102_200911301916382178 YTN. 2009. 11. 30 보도

5) 특허청 내부자료,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010.6. 3쪽. 출원주체별 특허출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 24.1%, 외국인(기업 및 개인) 21.5%, 중소기업 13.4%, 대학 5.8%, 공공연구기관 5.3%, 기타 개인 등 29.4%

6)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관리자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건수 기준.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시 기업 소유자(owner)의 개인명의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7) 특허청, 앞의 내부자료 3쪽.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은 40%, 우리나라 대기업은 44.5%가 지재권 전담인력을 두고 있음

지식재산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비용감면, 해외출원 비용지원,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제공, 우수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 지원, 특허제품 우선 구매 및 판매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의 발명,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활동에 대한 특허청의 지원 정책에 대하여 소개한다.

II.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

지식재산 관련 활동에 대한 특허청의 지원은, 특허출원료 감면, 국제특허출원비용 지원 등 새로운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여 권리화 하는 것을 돕는 ‘권리화 지원’ 과, 특허 받은 기술을 거래하거나 제품화하여 사업하는 것을 돕는 ‘사업화 지원’ , 특허분쟁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 , 권리화 · 사업화 · 분쟁 대응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종합 컨설팅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

<권리화 지원>

1. 출원 · 등록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

○ 사업개요

-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 · 전담조직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와 개인, 중 · 소기업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⁹⁾청구료 등을 감면해줌으로써 발명 및 개발기술의 권리화 촉진¹⁰⁾. 연중 지원

8) 이하는 특허청에서 2010년 6월에 발간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의 내용을 재분류, 정리한 것임

9)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함은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내가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와 같거나 유사함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등록권리자가 주로 청구한다. 이에 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함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또는 디자인, 상표)이 타인의 등록 특허권(또는 디자인, 상표)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구하는 것임

10) 상표·서비스표는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

○ 지원규모 및 내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대학원생 제외),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면제(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제외)
- 개인 및 중·소기업 70% 감면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50% 감면(단 공공연구기관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대상이 아님)

2. 국제출원비용 지원제도

○ 사업개요

-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수발명의 해외 출원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 비용
- PCT 국제 출원은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외국출원시 소요된 비용의 일부 (1건당 700만 원 한도, 연간 5건까지)

<사업화 지원>

1. 중소기업 우수발명에 대한 시제품 제작지원

○ 사업개요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가운데 기술성 과 사업성이 우수한 대상을 엄선하여 국제출원비용·시제품제작·발명의 평가비용을 연계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게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이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사업화 가능성, 수출유망성,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발전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경영능력

○ 지원규모 및 내용

- 1인당 1건 5,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 제작비의 70% 범위 내

2. 특허기술 평가지원

○ 사업개요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가운데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것을 엄선하여 국제출원비용·시작품 제작·발명의 평가비용을 연계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게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으로서 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한 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 지원규모 및 내용

- 개인 및 중소기업자가 평가수수료 보조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완료된 평가에 한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평가금액의 70%까지 지원

3. 특허기술 거래지원 (기술 수요자 중심)

○ 사업개요

- 기업·창업예정자·기술투자자 등 특허기술 구매 및 라이선싱을 희망하는 기술 수요자에게 우수한 특허기술의 알선·중개를 지원

○ 지원대상

- 특허기술의 구매 혹은 라이선싱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
- 특허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기업
-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한 자금투자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
-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진행

○ 지원내용

- 맞춤형 우수 특허기술의 발굴 및 알선·중개
- 희망 기업 중 선정하여 기술이전 종합컨설팅 서비스 지원
- 이전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게 기술 사업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
- * 중소기업청 이전기술개발사업 실용과제, 산업은행 기술거래금융,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보증 등

4. 특허기술 거래지원 (기술 공급자 중심)

○ 사업개요

-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우수 특허 기술의 판매 및 라이선싱을 지원하여 우수 특허기술의 활용 지원

○ 지원내용

-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www.ipmart.or.kr) 를 통해 거래 희망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기술거래 당사자간 직거래 지원
-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된 수요기술 정보와 매칭 서비스 제공
- 전문 유통 상담관의 특허기술 이전 알선 및 중개 지원
- 우수 특허기술을 선별하여(연간 80건) 공급자 중심 특허기술거래 지원
- * 기술 마케팅 자료(기술 홍보 시뮬레이션, 마케팅 보고서) 제작 지원, 특허기술 상설 장터 내 전시, 온라인 기술경매 등

○ 이용방법

- 인터넷 특허 기술장터에 이전 희망 특허기술을 등록
- 기술마케팅 자료 제작 및 온라인 기술경매 신청
- 수요기술 검색 및 특허기술 관련 정보 검색

5.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제도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발명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 등에게 동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 수시 접수함

○ 지원대상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 지원 내용

- 신청된 발명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 추천 여부 심사
- 제품의 우수성, 구매효과성,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제품의 연관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특허청장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추천

<특허분쟁 지원>

1. 특허 법률구조사업

○ 사업개요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소기업, 영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기반의 확대

○ 지원대상

- 소기업, 학생, 만 19세 미만인 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영세 개인발명가 또는 대기업과 특허분쟁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을 보유한 사회·경제적 약자가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따른 심판 또는 소송비용

○ 지원규모 및 내용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무료 특허 법률상담
-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 심판 200만원 이하/건당, 소송 500만원 이하/건당

2.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한 특허정보 지원

○ 사업개요

- 국내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분쟁정보 및 특허분석 정보 제공
 - 주요 교역국에서의 특허소송 현황을 분석한 특허분쟁지도를 작성 · 보급
- 주요 특허권관리회사 또는 특허괴물(Patent Troll)¹¹⁾의 현황 및 분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 외 분쟁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 주요 특허권관리회사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 분석 결과를 가공하여, 국내 수요기업에 분쟁예보 정보 메일을 주기적으로 제공¹²⁾

11) ‘특허괴물’ 또는 ‘특허권관리회사’는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 대학, 개인발명가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 특허권으로 다른 기업에 대하여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로열티를 받아내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미활용 특허를 구매하여 발명을 촉진하고 발명가에게 힘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매입한 특허권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주로 소송 제기용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기도 함

12) 10년 6월 현재 8차 정보제공 이메일 발송

○ 지원대상

- 중소중견 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 지원내용

- 해외 주요 IP 관례정보 서비스
 - 미국 545건, 일본 81건, 영국 78건, 독일 61건, 중국 193건
- 한국 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정보 서비스
 - 2000년도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의 최신분쟁 현황 수록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가이드
 - 해외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할 현지 지식재산권 가이드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베트남, 태국 지재권 정보 수록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잠재력 높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즉, 특허청 심사관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재권 관련 제도 및 출원/등록절차, 지재권 분쟁 대응방안, 직무발명제도, 지재권 정보 활용, 지재권 사업화 등 지재권 전반에 걸쳐 자세하게 상담을 해줌

○ 지원대상: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

2. 민간 지식재산(IP) 전문가 파견 사업

○ 사업개요

- IP경영 우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혜기업의 IP경영 수준을 고려하여 민간의 IP 전문

가를 통한 기업의 IP경영 전략, 우수특허 확보, 분쟁 대응 지원 등 체계적 IP 전략 집중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IP경영 실사·도입 예정 기업, IP경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기업(30개 내외 기업)

○ 지원규모 및 내용

- 연간 30개 내외 중소기업 대상
- 지원기업의 수요와 IP 역량을 감안,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등 업체당 컨설팅 소요 비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파견

3. 지역 브랜드 ·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 사업개요

- 전국 주요도시의 지역지식재산센터¹³⁾에서 컨설팅과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 지자체와 매칭하여(5:5) 선행상표디자인 조사, 출원비용지원, 상표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

* 브랜드 11개 센터, 디자인은 9개 센터에서 실시¹⁴⁾

-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현지 맞춤형 브랜드 개발 · 권리화 지원(17개 내외 기업 지원)¹⁵⁾

○ 지원대상

-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매출액 50억 원 이상 또는 수출액 100만 불 이상인 기업
- 지역 내 중소 ·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

13) 서울지역 지식재산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전화 480-3633 Fax 380-3639. 주소: (우)121-270 서울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E3-2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1층. www.ipseoul.kr

14) 서울지역의 경우, 2010년도 하반기 지원계획을 7월말~8월초에 공고하여 상표검색비용 등 지원예정

15) 서울지역의 경우, 금년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지원은 없으며 내년에 지원을 재개할 계획임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역 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 사업: 브랜드(33개), 디자인(27개)
- 비영어권 브랜드: 17개 기업

4. 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맵(map) 제공

○ 사업개요

- 주요 선진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물품별, 국가별 디자인 개발동향과 분쟁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제공 (www.designmap.or.kr)
- 중소기업의 디자인 품질과 분쟁 대응 능력을 높여서 디자인경쟁력을 강화

○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 누구나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10년 현재 56개 물품 군에 걸쳐서 약 50만개의 등록 디자인 DB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찾고자 하는 물품(예: MP3)의 명칭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그 물품에 대한 기존의 디자인을 검색 가능

III. 글을 맺으며

이제까지 특허청이 시행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재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 소개한 정책 외에도 ‘09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맵 맞춤형 서비스, 전국 31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특허정보종합컨설팅¹⁶⁾ 및 지재산 무료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재산 설명회¹⁷⁾ 등이 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와 50:50의 비율로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자금을 조성하며, 서울시는 ‘09년도부터 참가하고 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은 특허출원

16) 특허청, 2010 지식재산백서 259p~276p

17) 특허청, 2010 지식재산백서 254p~258p

전 단계부터 출원단계, 출원 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시작품제작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의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는 ‘특허 스타기업 육성 사업’¹⁸⁾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도 지재권 하나 없이 적당히 물건을 만들어 팔던 시대는 지나갔다. 기업이 계속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인 지재권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질적으로 우수한 강한 특허, 강한 디자인, 강한 상표(브랜드)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재권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재권 확보와 관리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청은 인력과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과 활용 및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기존의 정책은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SDI**

18) 이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지방의 유망 기업을 선발하여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비용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 특허청, 2010 지식재산백서 270p~274p